

## 투데이

'교맹이'(공부도 못하고 놀지도 못하는 학생) '쩐다'(대단하다) '네가지'(싸가지)

# 청소년 육설 문화… 한글 파괴 부끄럽다

은어·비속어 심각…언어 순화운동 시급

"아 그XX. 진짜 왜 그러나?"  
"원래 XXX야. 그러니까 우리한 테 회풀이 하는 거잖아. XXX 완전 재수다."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광주 시내의 한 패스트푸드점 앞. 중학생으로 보이는 한 무리의 아이들이 음식을 먹으며 육으로 범벅이 된 대화를 나눈다.

"요즘 육하지 않는 애들 찾는 게 더 어려워요. 이제는 워낙 많이 들어 악수할 정도예요."

한글날(9일)을 며칠 앞둔 시점. 요즘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바른말을 배우고 사용해야 할 청소년의 육설 사용이 도를 넘었

다. 육이 없으면 대화가 불가능할 정도다.

청소년들의 대화 속 비속어 사용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전문가들은 청소년들의 이러한 육설문화에 대해 '육설이 일상화된 인터넷 문화'를 가장 큰 원인으로 꼽고 있다.

인터넷 대화창에서는 'ㅅㅊ'(타자) 'ㅅㅂ'(욕) 'ㅂㅅ'(병신)처럼 한글의 초성(初聲)만으로 줄여 쓰거나 '교맹이'(공부도 못하고 놀지도 못하는 학생) '네가지'(싸기) '조낸'(욕) '쩐다'(대단하다·짜증난다) 같은 표현을 아예 일상용어로 사용한다.

'X발 ○○○ 안티들 다 모여' '그

미친 ○○년 병신' '짜증 나는 색이 (새끼) 죽여' '치랄들 하고 자빠졌다' 병신같은 새끼들' 'X발 ○○○ 팬들 때문에 X나 짜질이 같다 ㅋㅋ' 같은 말들은 온라인에서 이미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문제는 우리나라 청소년들 사이에 한글 파괴, 언어 파괴와 정서 파괴가 동시에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청소년들의 육설문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학교와 가정에서 적절한 언어·인성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은 지난 5월 '학생 언어문화 개선 선포식'을 갖고 올바른 언어 사용에 대한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송길화 광주시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은 "가정과 학교의 인성교육 부재, 빛나간 인터넷 문화로 인해 청소년들의 육설이나 은어 사용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청소년 언어순화와 인성교육 관련 홍보 콘텐츠 개발 보급을 통해 육설문화를 추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한국교총은 광주 지역 학생 언어문화 개선 협력학교·교실을 공모해 봉산초(협력학교)와 문산초, 홍정남초, 유촌초, 경신중(협력교실)을 선정했다.

선정된 학교와 교실에서는 올 연말까지 교육극과 시청, 언어순화 자료 등 수업 활용, 한글날 특별수업 등 다양한 특화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한미FTA 강행 국회의원 낙선운동"

36개 농민단체연합으로 구성된 한미 FTA 저지 농수축산 비상대책위원회는 6일 서울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6000여명(경찰 추산)이 모인 가운데 한미 FTA 국회비준 저지 결의대회를 열었다. 비대위는 이날 "한미 FTA 추진을 강행하는 국회의원에 대해 내년 총선에서 낙선운동을 전개하는 등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진도군은 보조금 지원자격이 없는 영농조합법인 2곳에 보조금을 부적정하게 지원했으며 해양에너지공원 조성사업도 부적정한 설계로 설계비 1억2600만원을 날렸다. 이밖에 도로 확장 공사 추진 과정에서 공사 면허가 없는 업체와 수의계약해 무자격업체가 공사를 시행하는 결과로 빚어졌다.

전남도는 해남군과 진도군에 대한 전남도의 종합감사에서 편법 수의계약과 보조금 부정지급 등 무려 175건에 이르는 부당 행정 사례를 적발됐다.

전남도는 6일 종합감사 결과 해남군은 관내 도로 확·포장공사 사전환경성 검토용역 등 4건(6500만원)을 2개 업체와 분할해 수의계약했다고 밝혔다.

지방계약법상 동일 구조물과 단일공

사는 분할 계약을 할 수 없게 돼 있다. 또 공공하수처리시설과 하수관거 공사 설계 용역 발주에서도 불분명한 참가업체 자격 규정과 어긋난 세부평가기준 제한사례도 적발됐다.

보건진료소 신축 공사는 시행사 부도로 계약 해지를 한 후 후속조치를 전혀 하지 않다가 잣여공사를 별도 공사로 발주해 예산을 낭비했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 해남·진도군 종합감사 부당행정 175건 적발

해남군과 진도군에 대한 전남도의 종합감사에서 편법 수의계약과 보조금 부정지급 등 무려 175건에 이르는 부당 행정 사례를 적발됐다.

전남도는 6일 종합감사 결과 해남군은 관내 도로 확·포장공사 사전환경성 검토용역 등 4건(6500만원)을 2개 업체와 분할해 수의계약했다고 밝혔다.

지방계약법상 동일 구조물과 단일공

사는 분할 계약을 할 수 없게 돼 있다. 또 공공하수처리시설과 하수관거 공사 설계 용역 발주에서도 불분명한 참가업체 자격 규정과 어긋난 세부평가기준 제한사례도 적발됐다.

전남도는 해남군과 진도군에 관련 사업에 대해 시장하도록 조치하고 부적정 집행된 예산 42억여원에 대해서는 회수 및 감액 조치했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 일제 때 쓰던 행정용어 우리말로 바꿔 쓴다

행학철→나들이철

가내시→사전통보

간수→교도관

가드레일→보호난간

브로커→중개인

행정안전부는 6일 일본말에서 유래한 한자어나 영어로 된 행정용어 600여개를 우리말로 쉽게 고쳤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국립국어원과 국어학자 등 전문가들의 심의를 거쳐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행정용어 600여개를 선정하고 이를 대체할 우리

말을 제시했다.

의료수가는 진료비나 치료비, 가내시는 사전통보, 시검은 잡금, 시방서는 설명서, 여입 결의는 회수결정, 거마비는 교통비, 행학철은 나들이철, 간수는 교도관, 노견은 갓길로 고쳐 쓰도록 했다.

영어 등 외래어의 경우 티오는 정

원, 스피드건은 속도측정기, 브로커는 중개인, 가드레일은 보호난간, 스마트그리드는 지능형 전력망 등을 제안했다.

행정용어 순화어 검색과 교정 시스템은 한글날부터 행안부에서 시범 사용하고 내년부터는 전 부처로 확산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행정용어 순화어 검색과 교정 시스템은 한글날부터 행안부에서 시범 사용하고 내년부터는 전 부처로 확산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나주 혁신도시에 들어서는 한국전력 신사옥(조감도)이 다음달 착공한다.



6일 한국전력과 나주시에 따르면 다음달 2일 국무총리와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나주시장, 지역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나주 혁신도시에서 한국전력 신사옥 착공식을 연다.

나주에 조성 중인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에 들어서는 한전 신사옥은 14만9372㎡의 대지에 연면적 9만3222㎡, 지하 2층~지상 31층 규모로 지어진다. 이달 말 착공해 오는 2014년 8월께 완공될 예정이다.

/박정록기자 jwpark@kwangju.co.kr

## 대한적십자사 새 총재에 유종근 내정

대한적십자사는 6일 오전 중앙위원회를 열어 유종근(66·여) 현부총재를 차기 총재로 내정했다. 지난 1월 한적 부총재로 선임

된 유신재 총재 내정자는 한적 명예총재인 이명박 대통령의 인준을 거쳐 제27대 총재이자 한적 사상 첫 여성 총재로 취임하게 된다.

## 올 한반도 규모 2.0이상 지진 45회

기상청은 올해 9월까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규모 2.0 이상 지진은 총 45회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이는 1999년부터 2010년까지 연 평균 32.6회에 비해서 12회 가량 많으며 같은 기간 가장 많이 발생했던 2009년의 47회와 비슷한 수준이다.

## '제2 도가니' 방지…투명성·인권 강화 촉구

영화 도가니를 통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사회복지법인의 인권침해 대책 마련을 위해 정부와 장애인 인권단체, 학계 전문가 등이 머리를 맞댔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 투명성 강화와 인권침해 근절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사회복지 투명성·인권 강화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 노벨문학상에 스웨덴 시인 트란스트뢰메르



움을 겪게 됐지만 글쓰기는 멈추지 않았다.

고은 시인처럼 여러 번 노벨상 수상 후보로 꾸준히 그의 시는 50여 번에 언어로 번역됐다. 시인이기 이전에 저명한 심리학자로 청소년 교도소에서 일했으며 장애인, 마약 중독자, 재소자 등을 도왔다.

한편, 매년 유력후보로 거론됐던 고은(78) 시인은 이번에도 고배를 마셔 다음을 기약할 수 밖에 없게 됐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송정역 복합환승센터 시행자에 과격 인센티브

광주시가 광주송정역 복합환승센터 사업 시행자에게 주변지역 토지수용권을 포함한 개발권을 부여하는 과격적인 조건을 내걸 방침이다. 국비 지원율이 10%에 불과하고, 수도권 등에 비해 유동인구가 적은 지역적인 한계 등을 감안한 것이다.

광주시는 이 외에도 광주시 산하기관 사업 참여, 토지점용료 인하, 국비 추가 투입 추진 등의 인센티브로 제시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6일 오후 열린 KTX경제권포럼 '광주송정역 복합환승센터 개발방안' 발표에서 "11월 민간사업자 공모에 착수, 내년 3월 우선순위 협상 대상자를 정하고 협약을 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에서 광주시는 일괄개발, 컨소시엄 구성 등 사업방식, 개발권·행정 및 재정적·기반시설·교통체계 등에 구체적인 인센티브를 언급했다.

개발권 인센티브는 사업대상지인 10만6364㎡ 주변에 2차 사업부지 11만3581㎡를 추가로 토지수용을 통해 부담을 줄여 개발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민간사업자 유치를 위해 복합환승센터 주변의 난개발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

## 웃声响은 돈!

## 합법적으로 받아드립니다!

## ■ 채권의 유형

## 채권의 유형 대상 채권

상거래 채권	물품대금, 공사대금 등
매매 채권	부동산, 동산, 준부동산
금전소비대차 채권	대여금, 투자금, 억정금, 결돈 등
임차권 채권	주택, 상가, 차량, 중기 등의 사용료 대여료, 보증금
임금 채권	급여(정규, 일용)
가사	위자료 양육비, 재산분할, 부양
구상권	보증인 구상, 신원보증 구상, 변제구상(제3자)
기타	저작권, 부동이득, 형사 합의금, 기타

&lt;/